



올바른 여가의 방향

「여가사회학」과 「인지심리학 및 실험」 강의페어링

사회학과, 유상민, 201521952

목적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여가 시간의 활용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현대인들은 노동과정에서 소모한 노동력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여가 시간을 다양하게 활용해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여가 시간은 점차 획일화되고 있다. 일의 강도는 점점 늘어나는데 여가 시간은 단순해지는 모순된 상황 속에서 현대인의 스트레스 원인과 여가 활용 방식에 대해 분석해보고 올바른 여가 활용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모색해보려 한다.

‘여가사회학’에서의 강의페어링

노동과 여가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역사 속의 관점을 통해 노동과 여가를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서 노동과 여가가 받아들여지는 방식을 살펴본다.

노동은 임금노동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였고, 여가는 재충전의 의미로 우리 사회에서 자리잡았다.

‘인지심리학 및 실험’에서의 강의페어링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불안에서 온다. 고용불안정성, 성과주의와 능력주의의 사회 풍조, 인간 관계의 위태로움, 늘어난 수명으로 인한 불확실성, 대량맞춤형 생산이 가져오는 영향 등은 현대인들의 불안을 극대화시켰다.

현대 사회에서의 여가

◆ 텔레비전과 포드주의

- 포드주의가 생산의 원리를 넘어서 생활의 원리이자 삶의 형식으로 확산되기 위해서 ‘텔레비전’의 역할 컸음.
- 텔레비전 시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노동자들의 소통장소는 퇴색되고 탈정치화 현상이 발생함.

◆ 개인주의 문화의 부작용

- 나홀로 문화, 혼밥, 혼술 등의 확산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음.
- 나홀로 문화의 확산은 자발적인 경우보다 신뢰가 부족한 사회적 구조와 상황상 강제되는 경우가 많음.

여가의 올바른 방향

여가 활동은 손실된 노동력의 재충전보다는 자기계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여가 시간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공동체 활동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타인과의 교류를 통한 공동체 활동은 고독한 현대인들을 여가의 공간으로 끌어 낸다.

결론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고립 사회는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책임, 쓸쓸함과 불안을 더욱 증대시킨다. 변질된 개인주의 문화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의 중요성을 잊게 하고 현대인을 홀로 남게 한다. 가속화된 사회에 맞추어지는 나홀로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나홀로 문화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공동체 활동을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각적으로 발생하는 현대인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선 불안과 스트레스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기보단, 공동체를 통해 이겨내야 한다.

참고자료

김문겸(2002). 여가의 역사와 여가사회의 신화. 사회조사연구 제 17권. 1-22,
노명우(2015).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을 꿈꾸다. 사계절.

노명우(2008). 텔레비전, 또 하나의 가족. 프로네시스.
최석호(2017). 시간편집자. MEC씨엔아이